

SAMSUNG 노조 말살 위해서라면
서비스센터 3개 위장폐업쯤이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우리가 지킨다
해운대·아산·이천센터 다시 열어라!

삼성전자 제품고객 1,000만 서명

노조탄압 위해 서비스센터를 위장 폐업한 초유사태

삼성은 지난 3월 해운대아산이천 3개 서비스센터를 폐업시켰습니다. 이제껏 협력업체 사장들은 A/S수리기사들이 번 돈을 40%나 빼먹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던 사장들이 갑자기 운영이 어렵다며 문을 닫다니요? 삼성이 노동조합을 짓밟으려고 문 닫았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간 협력업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A/S 기사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삼성이 업체를 폐업시킬 것”이란 협박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결국 노동조합 주요간부가 있는 센터를 폐업시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삼성의 횡포를 막고 우리 삶을 바꾸자

서비스센터 폐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타지까지 찾아가거나, 엉뚱한 중고제품 수리업자가 찾아와 땀질식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A/S비용이라면서 10%나 높게 가격을 책정해온 삼성전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려고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제멋대로 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은 당장 위장폐업을 철회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폐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1,000만 서명으로 함께 요구합시다!

구분	이름	주소 (시/구/동)	한마디
1			
2			
3			
4			
5			
6			
7			
8			
9			
10			